

사설

공론장 의미 퇴색되는 대학가

지난 1일 서울캠 정문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데 이어 11일에는 탄핵 찬성 2차 집회가 열렸다. 최근 대학가에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집회가 활발하다. 다만, 이런 집회의 양상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 우려스럽다. 단순 의견 표출의 장을 넘어 외부인 개입으로 예상치 못한 충돌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일 집회에서는 외부인이 난입해 학생 발언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 외부인은 마이크를 빼앗아 욕설을 퍼붓기도 했으며, 학생 발언 중 핵심기로 노래를 틀어 의도적으로 집회를 방해했다. 심지어 정문 앞 도로에서는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화성기를 차량 지붕에 싣고 마을버스 진입 경로를 막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물리적

충돌의 위험성마저 보여준다.

비단 우리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화여대에서도 한 외부인이 학생이 들고 있던 피켓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대학에서 열리는 집회가 외부 세력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현실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은 오래전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민주화 운동 시절, 대학은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엔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외부인이 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개입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심지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온전한 의견표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외부 세

력 개입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성원 간의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을 전제로 한다. 폭언과 물리적 충돌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학내 곳곳에서 무단으로 부착된 대자보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학내 게시판에는 각 관리주체의 승인도장을 받아야만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승인이 찍히지 않은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조기총선' 등의 구호가 적힌 인쇄물이 캠퍼스 내 곳곳에 부착됐다. 이러한 행태는 대학의 자율적인 공론장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의사 표현까지 왜곡될까 우려스럽다.

학교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

실하다.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안전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학생 주체 집회에서도 필요시 외부인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대자보와 인쇄물 부착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대학은 단순한 학문의 전당을 넘어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일 집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공론장으로서의 대학의 의미가 퇴색됐음을 시사한다. 학교 측은 구성원의 안전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학생 역시 건전한 공론장을 유지하기 위해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캠퍼스가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진정한 자유 토론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세시봉

화해 거부?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의료계가 정부의 화해 제스처를 단칼에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한다는 조건 하에 내년도 입학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6일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상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일례로 지난 8일 김택우 대한의료협회(의협) 회장은 "2026학년도에는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않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 말했다. 물론 의협은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곤 했지만, 김 회장의 발언은 마치 일말의 타협 의지조차 없다는 것처럼 들린다. 또 올해 의대 지원을 희망하는 고3 수험생들은 뭘 죄인가.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전국 의대생은 여전히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따르면 2024학번 이상 의대생의 96%가 이번 학기 휴학 의사를 학교에 전달했다고 한다.

일부 의대 학생 사이에서는 신입생을 향한 강요도 벌어지고 있다. 한 의대 대학에서 재학생이 신입생에게 수업 거부와 휴학을 강요했다고 한다. 2025학번 신입생은 의대 증원 확대를 인지하고 입학한 학번이다. 따라서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 이들은 선배로부터 압박이 가해지고, 동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의대 학생 수업 거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었다.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대형 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병상 가동률은 최대 40%까지 감소했다.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던 정부지만, 지금은 한발 물러섰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할 차례다. 정부와 의료계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료 대란은 계속될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을 견디며 지켜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뤄져야

학교도 변화를 보여주세요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적음을 떠나 기존 수혜자들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은 오르는데 장학금 기회는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도 등록금을 올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학생들이 교내 인프라, 수강신청, 공간 부족 등의 문제들을 제기할 때, 학교 또한 부족한 재원을 바라보며 곤혹스러웠 것이다.

학교는 등록금 인상분과 더불어 각종 수입을 바탕으로 학생지원과 학교 인프라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당장 느끼는 누수 문제, 화장실 노후화, 외벽 도색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던 중, 자유응답란에 눈에 띄는 답변이 있었다.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이 진 부담만큼 학교에서도 변화를 보여주세요'다. 인상된 등록금으로 인해 당장의 학생이 져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만큼, 학교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이 올해부터 5.1% 인상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분 사용처 질문에 '인프라 구축'을 가장 많이 골랐다. 등록금은 올랐지만, 점점 남아가는 학교 인프라와 이체는 받을 수 없는 국가 장학금2 유형이 학생들에게 달갑게 느껴지기란 어려울 터이다. 따라서 이번 등록금 인상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장학금2 유형 대체 방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예산팀은 학교 자체 장학 유형을 신설해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장학금을 받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지급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물론,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급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금액의 많고



만평 등록금 인상분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언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